

개인 결과물

이혜림

10강과 11강 강의를 통해 교육을 마치며 전력시장 내의 빅데이터화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 강조했던 기업들의 전략 중 가장 우선시 되는것이 데이터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라별로 덴마크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구축되어 있을 만큼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유연한 발전시스템의 구축과 예측, 운영, 기획 톨의 전문화, 투명한 계통 관련 규정이며, 오스테드라는 기업을 원래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련된 기업이었으나, 성공적으로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며,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히 발전해나가고 있다가 아닌,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Orsted의 유럽시장 경쟁력을 파트너십 지도로 파악할 수 있었고 사업확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현재 2차 wave로써 업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함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에너지에 관한 것들이 소비자들은 유연해지고 적극적이게 되며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방법인 다양한 믹스를 통하여 변하고 있다고 한다.

11가지 강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서는 빠르지 못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기업, 민간인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며, 제도적 문제도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점적인 구도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re100의 문제점으로서의 원인으로도 독점적인 구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전의 독점적인 전력시장구조라고 생각한다. 이로서 과제는 먼저, 유연한 변화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re100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장점들을 알고 있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에너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단순히 재생에너지는 좋으며 기술적으로 발전해나가게 된다면 미래에는 환경문제와 에너지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듣고 많은 정보를 읽고 정리해나가며 실질적으로 이런 결론을 위하여 전세계 기업, 정부가 하고 있는 제도와 법률은 어떤 것이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기업, 정부, 민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발전해나가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게 알게 되었다.

내가 느낀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적극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